

사회

“화웨이단지 지금 보조금 손실분 12억원 회수”

나주시, 신정훈 前 시장에 구상권

관련 공무원 4명에도 ... 결과따라 큰 파장

나주시 공산면 화웨이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가 낙마한 신정훈(46) 전 나주시장에 대해 나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 단체장의 행위로 인해 손실된 재정을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산면 화웨이단지 조성에 지급된 보조금의 손실분을 회수하기 위해 신 전 시장과 이모(44·5급)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산면 화웨이단지는 국비와 시비 등 12억3000만원과 N화웨이농조합법인 자비 등 총 2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조성됐으나, 보조금 부당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시는 N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3300만원을 회수한 뒤 지난 1월부터 화웨이단지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신 전 시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최근 감사원에 구상액 범위 결정을 요청했다.

나주시는 구상액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산 추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신 전 시장의 경우 사실상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고, 지자체가 전입 단체장의 위법 사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시는 구상권 행사가 앞서 신 전 시장의 재산상태를 조회했으나, 주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이 어머니나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시는 신 전 시장의 자분이 2분의 1로 돼 있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보조금 손실분을 만회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나주시 보조금 부당지급 사건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지난 2004년 나주시 공산면에 화웨이단지(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자기 자본 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화웨이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배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07년 7월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2008년 8월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신 전 시장이 1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해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다는 1심을 뒤집고 2009년 6월 신 전 시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을 확정했고, 신 전 시장은 직위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신 전 시장이 1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해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다는 1심을 뒤집고 2009년 6월 신 전 시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을 확정했고, 신 전 시장은 직위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 안팎에선 이미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변상 조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 조성과정에서 공개매각 유찰에 따른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선 구상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구상액 범위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2006 도의장 선거 거액 ‘뒷돈’

현 도의원 13명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이 지난 2006년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8일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모(56·구속) 전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전남도의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8대 전남도의원 가운데 30여명이 당시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500만~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현직 도의원은 A의원 등 12~13명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B의원 등 현역 의

원 4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 현직인 C의원에 대해서 서면대변을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구속된 김 전 의장과 일부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도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해수담수화 사업’ 과정에서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장선거 당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164) 김종두



도심 상승 빈집 털이 동부경찰, 3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8일 도심 주택가에 몰래 들어가 상승적으로 금품을 털어 이모(36·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북구 오치동 강모(여·58)씨의 집에 침입해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7월 말 장흥도소에서 출소한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주택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현관 유리창을 털로 파손하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이트서 부킹녀에 맥주병 휘둘러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중이던 30대 자신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뜨려던 여성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7일 밤 11시에 광주시 서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소개로 정모(여·39)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씨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빈 맥주병으로 정씨의 이마를 내리쳤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온 뒤 함께 어울려 놀던 남성들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신의 테이블로 온 정씨가 5분도 지나지 않아 “재미있게 보세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부동산 미끼로 수천만원 꿀꺽 목포경찰, 40대 구속

목포경찰은 8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4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충남 홍성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 부지 계약금이 부족해 공사를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이모(40)씨에게 접근,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흥겨운 보육교사들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광주지역 보육단체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0 광주시 보육인 한마당' 행사에서 동료 보육교사의 공연이 펼쳐지자 객석 청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량 10대들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모 중학교 동창인 문모(17·고교 2년)군 등 4명, 문군 등은 지난 9월 24일 새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이모(38)씨의 승합차로 접근했다.

이후 재미삼아 승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문군 등은 ‘덜컹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차량에 있던 내비게이션과 현금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문군 등은 이날 이후로도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만 보면 손잡이를 잡아 당기기 시작했다. 생

취객 주머니 돈 빼내고 차량털이 주차된 차량서 수백만원 훔치기도

각보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은 문군 등과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서구지역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윤모(16)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기자 kimho@】

우연히 남구 주월동 한 공원 팔각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모(24)씨를 발견했다. 김씨의 바지 호주머니와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과 MP3플레이어 등을 꺼내 가는 등 취객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계속했다.

한편,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은 문군 등과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서구지역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윤모(16)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 8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소금 유통권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J(55)씨 등 조합 관계자 6명과 부동산업자 2명 등 8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사장에 취임한 J씨는 소금 유통업자인 이모(41)씨에게 “선거 운동을 해주면 소금 유통권과 조합의 토지 매각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편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유통업자인 또다른 이모(54)씨로부터 조합 운영비 5억원을 빌리면서 채권 최고액을 17억원으로 부풀려 근저담을 설정하고, 조합 토지 1만3000㎡를 무자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입건된 조합원들과 짜고 조합원 총회에서 토지 7만㎡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농민수산물부문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이 소금 유통권 미끼 ‘뒷돈’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2월 1일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